

濟州島의 家口構成*

—1980年 人口센서스 資料를 中心으로—

李 昌 基**

I. 序 論

家族의 構成이 비교적 단순한 西歐의 核家族과는 달리 構成이 매우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韓國의 家族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家族類型 및 家族의 外的 形態에 관한 研究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濟州島의 家族制度가 陸地部の 傳統的 韓國家族과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相異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니와 철저한 長男分家, 높은 離婚率과 再婚率, 女性의 勞動投下가 많은 田作農業과 潛嫂活動, 日帝時代의 男性人口의 過度한 島外 移出, 4·3事件에 의한 많은 男性의 犧牲等等 濟州島가 간직하고 있는 制度的, 社會經濟的, 歷史的 特殊性은 現實의 家族生活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家族의 外的 形態 및 家口構成에 있어서도 濟州島 나름의 特性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濟州島의 家族에 관한 研究를 ① 家族 및 親族制度에 관한 研究, ② 家族關係 및 家族의 內部構造에 관한 研究, ③ 家族類型 및 家族의 外的 形態에 관한 研究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家族制度 및 家族關係에 關心이 집중되어 있었고 家族의 外的 形態를 분석하는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家族制度나 家族關係를 다루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家族의 크기나 家族의 類型도

* 본 연구는 1987년도 영남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文科大學 社會學科 助教授

2 人文研究

함께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¹ 대부분 다른 연구에 부수적으로 진행된 것들이거나 部落單位의 事例調査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매우 단편적일뿐만 아니라 濟州島 全體의 모습을 파악하는데는 限界가 있었다.

筆者는 이러한 限界點을 극복하고 部落水準을 넘어서 濟州島 全體의 家口形態를 파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本 研究에서 分析의 對象으로 삼은 주된 資料는 1980年 人口센서스 統計이다. 人口센서스는 1955年 이후 每 5年마다 시행되어 왔지만 1980年 센서스가 가장 최근의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비교적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자료로 선택한 것이다.

1980年 人口센서스 報告書는 家口를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² 이 논문에서는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家族과 家口의 概念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李昌基: 1987)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하지는 않기로 한다.

II. 家口主의 性格

1. 家口主의 性

濟州島의 家口構成의 特徵은 우선 家口主의 性別分布에서부터 나타난다.

1980年 센서스에서 나타난 家口主의 男女比率를 비교해 보면 濟州島는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男子家口主의 比率이 낮고 상대적으로 女子家口主의 比率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表 1〉에 의하면 全國水準에서 男子家口主의 比率이 85.3%인데 비하여 濟州島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74.6%로 나타나고 있다. 濟州島가 全國水準보다 10.7%포인트 낮은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全國的으로 女子家口

¹ 濟州島 家族의 外的形態 및 家族類型에 대해서 언급한 論著들은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1979) 第二章 “家族의 現實的 類型”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후에 발표된 것으로는 金惠淑(1985)과 李昌基(1987)의 논문이 있다.

² 「일반가구」와 「집단가구」의 구체적인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1980)」, 용어해설 참조.

〈表 1〉 家口主의 男女比率(1980)

(%)

	全 國			濟 州		
	全 國	市 部	郡 部	濟 州	市 部	郡 部
男	85.3	84.5	86.5	74.6	77.0	73.2
女	14.7	15.5	13.5	25.4	23.0	26.8

자료: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1980).

主의 比率이 15% 정도인데 濟州島는 25%가 넘는다는 것이다. 都市地域(市部)과 農村地域(郡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濟州島가 女家口主의 比率이 높다.

濟州島에서 女家口主의 比率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人口센서스 資料가 여기까지 解答을 提供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크게 세가지 요인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長男까지도 結婚後에 分家시키는 濟州島의 독특한 家族制變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長男分家를 濟州島家族制度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거나³ 子女들을 모두 分家시키고 男便과 死別하게 되면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하고 아들의 扶養을 받게 될 때까지 女家口主로 남게 되는 것이다. 女家口主의 比率이 높은 가장 근본적인 要因이라 생각된다.

둘째는 男性의 缺損이 심한 濟州島의 人口構造의 特性을 들 수 있다. 濟州島에서는 日帝時代의 島外移出과 1948年の 4·3事件, 6·25등으로 男性人口의 缺損이 심했고 이로 인해서 女性의 死別率이 매우 높다. 특히 1910年~1930年 出生集團(1980年の 50歲~70歲 年齡層)의 性비가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李昌基: 1982). 長男까지도 分家하는 家族制變 아래에서 中年以上の 女性들 가운데 死別者가 많다는 것은 女家口主의 比率을 높이는 중요한 要因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男性人口의 缺損이 심한 年齡層이 人口構造上에 殘存할 때까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限時的 要因이라 할 수 있다.

³ 崔在錫(1979)의 第一章 “類型과 相續面에서 본 長男家族”이 대표적이다.

4 人文研究

세계는 女性이 家計를 扶養할 수 있는 經濟的 條件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濟州島는 耕作地의 98%가 밭이고(제주도:1981, p.77), 밭농사는 女性의 勞動力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 海岸部落에서는 女性의 潛嫂活動이 중요한 收入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濟州島에서는 男性의 도움없이도 女性이 經濟的으로 自立하기가 쉽고 自身과 家族의 生計를 扶養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적다. 이러한 經濟的 條件은 女性의 獨立生活을 조장하고 女子家口主를 增加시키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作用해서 濟州島에서 女子家口主의 比率이 全國水準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家口主의 年齡

濟州島의 家口主 年齡分布는 20代以下에서 60代以上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30代가 26.9%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0代 다음으로는 40代로서 26.0%를 점하고 있다. 이 두 연령층이 전체 가구의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서 60代以上, 50代, 20代以下の 順으로 나타난다.

〈表 2〉 家口主의 年齡分布(1980)

	20代以下	30代	40代	50代	60代以上	計
全 國	15.7	28.3	26.6	17.2	12.2	100.0
濟 州	14.5	26.9	26.0	15.4	17.2	100.0

濟州島의 家口主 年齡分布를 全國水準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50代以下는 濟州島가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60代以上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60代以上 家口主의 比率이 全國은 12.2%인데 비해 濟州島는 17.2%로서 5%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1966年 人口센서스의 10% 標本調査資料에서도 60代以上 家口主의 比率이 全國은 11.0%인데 濟州島는 20.8%나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濟州島에서 60代以上 老年層 家口主의 比率이 높은 것은 子女들

과 分居·獨立하려는 철저한 分家原則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老人人口의 比重이 큰 人口構造의 영향도 매우 큰 것 같다. 1966년과 1980년의 60歲以上 人口比率이 全國은 각각 5.2%, 6.1%인데 濟州島는 이보다 높은 8.3%, 7.0%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李昌基: 1982).

濟州島의 家口主 年齡分布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女子家口主의 年齡分布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表 3〉 女子家口主의 年齡分布(1980)

	20代以下	30代	40代	50代	60代以上	計
全 國	18.4	13.9	23.3	24.7	19.8	100.1
濟 州	9.8	9.8	19.8	24.5	36.2	100.1

〈表 3〉에서 보듯이 全國水準의 女家口主는, 30代의 비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全 年齡層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濟州島는 50代以上에 集中되어 있다. 특히 젊은 층의 비율이 매우 낮고 60代以上の 老年層의 比率이 매우 높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濟州島의 女子家口主가 더욱 高齡化되어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며 젊은 女性이 學業이나 就業을 위해 獨立된 家口를 形成하는 경유가 濟州島에서는 비교적 적고 그 대신 中年以上の 無配偶女性이 家口主가 되는 경향이 많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점은 家口主의 配偶關係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家口主의 年齡分布를 都市地域(市部)과 農村地域(郡部)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全國이나 濟州 모두 都市나 農村 사이에 뚜렷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表 4〉 市部·郡部別 家口主 年齡分布(1980)

		20代以下	30代	40代	50代	60代以上	計
全 國	市 部	19.7	32.7	25.6	14.1	7.8	99.9
	郡 部	10.0	22.1	27.9	21.7	18.4	100.1
濟 州	市 部	21.3	30.5	24.3	12.4	11.4	99.9
	郡 部	10.5	24.8	27.0	17.2	20.5	100.0

6 人文研究

〈表 4〉를 보면 40代에서는 農村地域의 比率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都市地域에서는 30代以下(특히 20代以下)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農村地域에서는 50代以上(특히 60代以上)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都市地域과 農村地域 사이에 家口主의 年齡分布가 이처럼 뚜렷하게 對比되는 것은 그간에 진행되어 온 産業化, 都市化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60年代 後半 이후 농촌의 젊은 인구층이 대거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의 젊은 家口主는 줄어들고 도시의 젊은 家口主는 증가하게 되었을 것이다.⁴

3. 家口主의 配偶關係

家口主의 婚姻狀態를 살펴보면 有配偶者가 전체 家口主의 7割(濟州) 내지 8割 以上(全國)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無配偶者 中에서는 死別者가 가장 많은데 全國은 10.3%, 濟州는 19.1%이며, 未婚者는 全國이 6.3%, 濟州가 5.5%로 나타나고 있다. 離婚者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서 全國이 0.9%, 濟州가 2.0%에 불과하다.

〈表 5〉 家口主의 配偶關係(1980)

	有 配 偶	死 別	離 婚	未 婚	計
全 國	82.5	10.3	0.9	6.3	100.0
濟 州	73.4	19.1	2.0	5.5	100.0

濟州島의 家口主의 婚姻狀態를 全國과 비교해 보면 有配偶者와 未婚者의 比率은 濟州島가 낮은 반면에 死別者와 離婚者의 比率은 全國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家口主의 配偶關係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差異는 男子家口主보다 주로 女子家口主의 差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男子家口主는 9

⁴ 1966年의 家口主 年齡分布를 市部와 郡部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全國, 濟州 모두 市部와 郡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1980年에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음은 그간의 변화가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割以上の 대부분이 有配偶者이고 死別, 離婚, 未婚者는 극히 소수일 뿐만 아니라 全國과 濟州島 사이의 比率의 差異도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表 6〉 女子家口主의 年齡分布(1980)

	有 配 偶	死 別	離 婚	未 婚	計
全 國	22.2	58.1	3.9	15.7	99.9
濟 州	18.2	68.2	5.4	8.2	100.0

濟州島의 女家口主는 死別者가 68.2%로 가장 많고 다음이 有配偶者로서 18.2%이다. 未婚者(8.2%)나 離婚者(5.4%)인 女家口主는 그 비율이 비교적 낮다.

女家口主의 配偶關係를 全國과 비교해 보면 역시 有配偶者와 未婚者의 比率은 濟州島가 낮고 死別者와 離婚者의 比率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濟州島의 女家口主 중에서 死別者와 離婚者의 比率이 全國보다 높은 것은 濟州島 女性 全體의 死別率과 離婚率을 반영하는 것이며(「家口主의 配偶關係」參照) 未婚者의 比率이 낮은 것은 都市化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⁵

한편 男子家口主의 無配偶率이 매우 낮은 것은 死別者나 離婚者가 쉽게 再婚에 이르고 未婚 男性이 獨立 家口를 形成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⁵ 濟州島에서도 都市地域에서는 未婚女家口主의 比率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80年 全國市部の 女子家口主 중에서 未婚者가 차지하는 비율은 21.6%인데 濟州島의 市地域에서도 18.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濟州島의 市地域 人口比重(36.23%)이 全國水準(57.25%)보다 낮기 때문에 濟州 全體의 未婚女家口主 比率이 8.2%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Ⅱ. 家口員의 配偶關係

1. 家口員의 配偶關係

앞에서 우리는 家口主의 婚姻狀態(配偶關係)를 살펴 보았는데 이 자리에서는 家口主를 포함한 全體 家口員의 配偶關係는 어떠한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資料는 1980年 人口센서스 報告書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혼인상태별 인구> 집계표 중 <관계미상>(특별조사구 인구로 추정됨)과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의 15歲以上 家口員이다.

〈表 7〉 家口員의 配偶關係(1980)

	有 配 偶	死 別	離 婚	未 婚	計
全 國	59.9	8.0	0.5	31.6	100.0
濟 州	56.6	10.8	1.2	31.4	100.0

註: 15歲以上. 보통가구.

〈表 7〉에서 濟州島의 15歲以上 家口員의 配偶關係를 살펴보면 有配偶者가 56.6%, 未婚者가 31.4%, 死別者가 10.8%, 離婚者가 1.2%로 나타나고 있다.

이 分布比率을 全國水準과 비교해 보면 未婚者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死別者와 離婚者의 비율이 濟州島가 약간 높아서 家口員의 有配偶率은 全國의 59.9%에 비해 3.3%포인트 낮은 56.6%를 기록하고 있다.

〈表 8〉 性別家口員의 配偶關係(1980)

		有 配 偶	死 別	離 婚	未 婚	計
全 國	男	61.1	2.0	0.4	36.6	100.1
	女	58.7	13.6	0.6	27.0	99.9
濟 州	男	59.4	2.1	0.9	37.7	100.1
	女	54.2	18.4	1.4	25.9	99.9

註: 15歲以上. 보통가구

家口員의 配偶關係를 性別로 나누어서 男子家口員과 女子家口員을 비교해 보면 全國이나 濟州 모두 未婚率은 男子가 훨씬 높고 死別者의 比率은 女子가 훨씬 높다. 離婚者의 비율은 대단히 낮기는 하지만 男子보다 女子가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男子의 婚姻年齡이 女子보다 높고 쉽게 再婚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有配偶率은 男子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濟州島의 性別 配偶關係를 全國과 비교해 보면 男子는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離婚者의 比率에서 2배 이상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비해 女子는 離婚者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死別者의 비율도 약 5%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서 未婚者의 비율이 1% 포인트 정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有配偶率은 4.2% 포인트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濟州島 女性이 結婚은 다소 일찍 하지만 死別者와 離婚者가 많아서 有配偶率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家口員의 配偶關係를 市部와 郡部로 나누어서 都市地域과 農村地域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都市地域에서는 未婚者와 離婚者의 比率이 높고 農村地域에서는 死別者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有配偶率은 全國과 濟州가 서로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全國水

〈表 9〉 市部·郡部別 家口員의 配偶關係(1980)

		有 配 偶	死 別	離 婚	未 婚	計
全 國	市 部	58.4	6.5	0.6	34.4	99.9
	郡 部	61.9	10.0	0.4	27.7	100.0
濟 州	市 部	57.6	8.1	1.3	33.0	100.0
	郡 部	56.1	12.3	1.1	30.5	100.0

註：15歲以上. 보통가구.

準에서는 都市地域의 未婚者 比率이 많이 높기 때문에 有配偶率이 都市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濟州島는 農村地域에서 死別者의 比率이 특히 높기 때문에 農村地域의 有配偶率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濟州島의 家口員의 配偶關係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 본다

면 未婚者의 比率에 있어서는, 男女間·地域間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全國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비해서 死別者의 比率과 離婚者의 比率에 있어서는 濟州島가 매우 높은 特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有配偶率은 濟州島에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濟州島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死別者의 比率과 離婚者의 比率에 대해서는 人口構造의 영향을 배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年齡別로 分析해 보기로 한다.

2. 年齡別 死別者의 比率

현실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家口員의 配偶關係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별조사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하고 <보통가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80年 人口센서스 보고서에는 <보통가구원>만의 年齡別 配偶關係는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다. 年齡別로 死別者의 比率과 離婚者의 比率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특별조사구>와 <집단가구>의 인구를 포함시킨 <연령 및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통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年齡別 死別者의 比率과 離婚者의 比率을 검토하는 이 자리에서는 <특별조사구>와 <집단가구>의 인구를 포함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가구>의 家口員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약간의 비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⁶

15歲以上 人口 중에서 死別者가 차지하는 比率(이하 死別率이라 쓰기도 한다)을 年齡別로 살펴보면 年齡이 높아질수록 死別者의 比率도 높아지고

⁶ <특별조사구>와 <집단가구>의 15세 이상 인구 중에는 未婚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全國—93.8%, 濟州—90.2%) 전체 未婚者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全國이 12.5%, 濟州가 7.4%에 이른다. 이들을 포함시켜서 配偶關係를 산출한다면 젊은 연령층의 未婚者 比率이 다소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死別, 離婚 및 有配偶者의 비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家族生活을 영위하고 있는 家口員의 配偶關係와는 얼마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年齡別 配偶關係의 대체적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表 10〉 年齡別 死別者의 比率(1980)

(%)

年齡	全 國	濟 州	女 子			
			全 國	濟 州	濟州市部	濟州郡部
全 體	7.6	10.6	13.3	18.4	14.1	20.7
15~19	0.0	0.0	0.0	0.0	0.0	0.0
20~24	0.1	0.1	0.1	0.2	0.2	0.2
25~29	0.3	0.5	0.5	0.9	0.7	1.1
30~34	1.1	1.5	1.8	2.6	1.9	3.1
35~39	2.4	3.2	4.1	5.8	4.9	6.4
40~44	4.6	5.7	8.1	10.0	9.6	10.3
45~49	8.9	10.7	15.4	17.9	17.2	18.2
50~54	16.5	21.5	27.8	33.2	33.0	33.3
55~59	23.8	33.1	40.1	48.0	49.1	47.6
60以上	46.6	55.6	68.0	72.3	74.3	71.6

註: 15歲以上. 특별조사구와 집단가구포함.

있다. 이것은 死亡秩序에 따라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年齡別 死亡者의 比率을 全國과 비교해 보면 20代後半 이후 全年齡層에서 濟州島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代以上の 年齡層에서 濟州島가 全國보다 훨씬 높은 死別率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差異는 女性들의 年齡別 死別率을 비교해 볼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男性들은 死別後 쉽게 再婚을 하는데 비해 女性들은 쉽게 再婚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濟州島 內에서 都市地域과 農村地域의 死別率을 비교해 보면 年齡別 死別率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15歲以上 女性의 全體 死別率은 農村地域(郡部)이 훨씬 높다. 年齡別 死別率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全體 死別率이 農村地域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人口構造上으로 死別率이 높은 40代以後의 年齡層이 농촌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濟州島에서 특히 女性의 死別率이 높은 것은 50代以上 女性의 경우 日

12 人文研究

帝下の 島外移出과 4·3事件, 6·25등으로 男性人口의 缺損이 많았던데 主要原因이 있는 것 같다.⁷

1920年代 中半 以後부터 日本으로 건너가는 濟州島民의 數가 급격히 늘어나서 解放 當時에는 在日 濟州僑胞의 數가 10萬名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多數가 解放後 歸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朴用厚: 1976). 解放直前 濟州島의 16個里를 조사한 石宙明의 자료에 의하면 出稼者의 약 7할 정도가 15歲~34歲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石宙明: 1949) 이들은 1910年~1930년에 出生한 集團이며 1980年의 50歲以上 年齡層에 해당된다.

또한 1948년부터 수년동안 濟州島 전역에 걸쳐 慘禍를 물고온 4·3폭동 사건은 공식발표에 의한 死亡者數만도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를 넘는 27,700여명에 달하고 있다(夫萬根: 1975). 희생자들의 연령분포는 확인할 수 없으나 青年層 男子가 多數였을 것으로 본다면 1980年 50代以上 女性의 死別率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自明하다. 6·25戰亂도 開戰 初期에 慶南北 一圓과 濟州島에서 주로 兵力을 充員함으로써 이 연령층 男子人口의 缺損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0代以下の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濟州島 女性의 死別率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현재로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몇 가지 조심스러운 추정이 가능하다면 濟州島에서 男子의 死亡率이 높을 可能性과⁸ 女子의 再婚率이 낮을 可能性을⁹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⁷ 이 점에 대해서는 李昌基의 논문(1982)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⁸ 1980年 人口센서스의 15%標本調査「經濟活動」면에 의하면 14歲以上 男子 就業者 중 漁業從事者는 全國이 1.91%, 濟州가 3.83%로 나타났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男子의 死亡率이 全國平均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망통계가 없다.

⁹ 都市化의 程度가 낮고(註 5參照) 女性이 經濟能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女性의 再婚率이 낮을 것이라 展望할 수도 있다.

部落單位의 調査報告에 의하면 離婚女性의 대부분이 再婚하는데 비해 死別者의 再婚率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東部地域의 한 부락을 조사한 崔在錫은 離婚女性의 95.7%가 再婚하는데 비해 死別女性은 17.1%만이 再婚하였음을 밝혔고(崔在錫: 1979, pp. 171~176), 西部地域

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3. 年齡別 離婚者의 比率

濟州島의 家口員의 配偶關係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離婚者의 比率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 15歲以上 人口 중에서 離婚者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全國水準과 비교했을 때 濟州島가 2배 이상, 연령에 따라서는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表 11〉에서 濟州島의 離婚者 比率을 全國과 비교해 보면 15歲以上 人口 1,000名當 全國이 4.90名인데 비해 濟州島는 2.3배인 11.43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性別로 나누어서 살펴보더라도, 男子가 女子에 비해 비율이 많이 낮기는 하지만, 男女 모두 濟州島가 여전히 2.3배나 높다.

〈表 11〉 年齡別 離婚者의 比率(1980)

(千分比)

年 齡	全 國	濟 州	男 子		女 子	
			全 國	濟 州	全 國	濟 州
全 體	4.90	11.43	3.58	8.31	6.18	14.26
15~19	0.14	0.11	0.13	0.11	0.16	0.12
20~24	0.67	1.93	0.53	1.23	0.85	2.72
25~29	3.48	10.44	2.31	7.13	4.65	13.84
30~34	8.89	20.89	5.75	18.43	12.21	23.53
35~39	11.44	22.94	8.19	17.55	14.78	28.63
40~44	10.72	22.93	7.90	16.56	13.63	29.34
45~49	9.29	21.61	6.67	11.01	11.78	30.70
50~54	7.11	19.62	5.61	12.50	8.39	24.30
55~59	4.82	13.09	4.30	8.92	5.27	15.40
60以上	2.21	5.15	2.38	6.95	2.09	5.15

註：15歲以上. 특별조사구와 집단가구포함.

의 한 부락을 조사한 金惠淑은 離婚女性의 84.6%, 死別女性의 21.3%가 再婚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金惠淑：1986).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제주도 전체로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고 또한 全國水準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낮을 것인지 비교할 척도가 없다.

濟州島의 離婚者의 比率을 年齡別로 살펴보면 男子 60%以上, 女子 85%以上이 結婚하는 20代後半부터 갑자기 높아져서 50代後半까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30代初半부터 50代初半까지는 약 2% 정도의 高率을 지속하고 있다.

男子는 60代以上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女子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30代初半부터 50代初半까지 1%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男子의 離婚者 比率이 女子보다 훨씬 낮은 것은 再婚率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女子는 20代後半부터 50代後半까지 1%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35歲~49歲 年齡層은 약 3%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全國水準의 離婚者 比率도 年齡別 傾向에 있어서는 대체로 濟州島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그 比率에 있어서는 濟州島보다 훨씬 낮아서 절반 이하, 어떤 연령층은 1/3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濟州島의 男女 離婚者 比率을 都市地域(市部)과 農村地域(郡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男子는 農村地域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女子는 都市地域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을 年齡別로 검토해 보면 年齡에 따라 상이한 경향이 발견된다. 즉 男子는 40代 中半까지 農村地域에서 높게 나타나고 40代 後半부터는 都市地域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女子는 20代 後半까지 農村地域에서 높게 나타나고 30代以後부터는 都市地域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都市地域의 35歲~54歲 年齡層의 女性들에게서는 離婚者의 比率이 3.5%~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代以下에서 農村地域의 離婚者 比率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農村地域의 初婚年齡이 낮아서 既婚者의 比率이 높은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만 거의가 다 결혼하는(男子 94%이상, 女子 98%이상) 30代以後의 地域間 離婚者 比率의 差異는 주어진 자료로서는 무어라 설명하기가 어렵다. 離婚 發生率의 差異와 再婚率의 差異가 복합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집중적인 조사분석을 필요로 한다.

〈表 12〉 市部·郡部別 年齡別 離婚者의 比率(濟州島：1980)

(千分比)

年齡	男 子		女 子	
	市 部	郡 部	市 部	郡 部
全 體	7.25	8.94	17.63	12.37
15 ~ 19	0.10	0.12	0.00	0.19
20 ~ 24	1.06	1.33	2.49	2.90
25 ~ 29	3.99	9.47	12.81	14.69
30 ~ 34	13.32	22.16	27.83	20.34
35 ~ 39	15.83	18.67	37.04	23.28
40 ~ 44	15.36	17.25	38.95	24.40
45 ~ 49	11.04	10.99	40.57	26.53
50 ~ 54	14.92	11.44	35.53	19.65
55 ~ 59	8.92	8.93	23.82	18.08
60 以上	6.14	4.83	6.75	4.60

註：15歲以上. 특별조사구와 집단가구포함.

여기에서 분석된 자료는 1980年 11月 1日을 기준으로 센서스 당시에 離婚狀態에 있는 者를 靜態的으로 포착한 統計로서 이미 再婚한 者는 有配偶者로 간주되어 이 통계에서는 빠져있다. 離婚者의 85%~95%가 再婚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註 9參照) 現在 離婚狀態에 있는 者의 比率이 全國水準에 비해 2배(연령에 따라서는 3배) 이상 된다는 것은 그만큼 濟州島의 離婚率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再婚者까지 포함해서 離婚經驗者의 比率 또는 離婚發生의 比率을 측정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임은 당연하다.

部落單位의 現地調査에서도 실제로 離婚經驗者의 比率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76年 1月 東部地域의 한 部落을 조사한 崔在錫의 報告에 의하면 男子既婚者의 17.7%, 女子既婚者의 24.1%가 離婚에 의해 初婚狀態가 解體되고 있다(崔在錫：1979, pp. 171~177). 또한 1986年 1月 西部地域의 한 部落을 조사한 金惠淑도 男子既婚者의 9.5%, 女子既婚者의 17.9%가 離婚에 의해 初婚이 解體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金惠淑：1986). 이것을 濟州島 全體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濟州島의 離婚率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로서는 충분하다.

이처럼 濟州島에서 離婚者의 比率(혹은 離婚率)이 높은 理由는 무엇일까? 崔在錫은 크게 4가지 要因을 지적하고 있다(崔在錫: 1979, pp. 186~187). 첫째, 夫婦의 年齡差로서 妻年上型이 많다는 점, 둘째 離婚과 改嫁를 용인치 않는 儒敎的 傳統이 稀薄하거나 缺如되어 있다는 점, 셋째 女子의 生活能力이 매우 강하다는 점, 넷째 父系血緣集團의 結合力이 弱하고 核家族의 形態를 취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첫째 要因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만 나머지 세가지 요인은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한 마디로 女性이 經濟的으로 自立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離婚에 대한 社會的 規制(儒敎的 規範, 家族 및 親族集團의 統制 등)가 약한 것이 濟州島에서 離婚率이 높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原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家口의 構成形態

1. 家口員數別 家口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와 그의 變化趨勢에 대해서는 家口의 크기를 분석하면서 이미 상세하게 다룬바가 있기 때문에(李昌基: 1987)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만 하기로 한다.

人口센서스에서 家口員數別 家口가 集計되기 시작한 1960년부터 1975년까지 4人以下(1975년에는 3人以下)의 少人數家口의 比率은 濟州島가 높고 5人以上(1975년에는 4人以上)의 多人數家口의 비율은 全國이 높은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서 濟州島의 家口規模가 매우 작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全國的으로 1人~5人 정도의 少人數家口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濟州島는 2人~4人 家口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全國水準과 濟州 사이의 偏差를 줄여 오다가 1980년에 와서는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한 특징을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表 13〉 家口員數別 家口分布(1980)

(千分比)

	1 人	2 人	3 人	4 人	5 人	6 人	7 人
全 國	48.0	105.4	144.6	203.3	200.4	146.5	97.0
濟 州	111.7	114.7	130.2	164.2	177.3	147.5	106.8
	8 人	9 人	10人	11人以上	計	平均家口員數	
全 國	29.9	14.8	6.2	4.0	1000.1	4.55	
濟 州	27.0	13.4	4.7	2.4	999.9	4.32	

이러한 현상은 平均家口員數의 趨移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人口센서스가 시작된 1925年 이후 1970년까지 출몰 濟州島가 家口當 1人~1.2人 정도 적게 나타났으나, 1975년에는 그 차이가 0.6人으로, 다시 1980년에는 0.2人으로 줄어들었고, 1985년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것은 濟州島의 家族이 長男分家와 男性人口의 缺損에 의해 오래 전부터 少規模家族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平均家口員數가 현저하게 적었지만, 1970年代 이후 全國적으로 核家族化가 촉진됨에 따라 全國의 平均家口員數가 급격히 감소하여 1985년에는 濟州島와 거의 일치하게 된 것이다(李昌基: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表 13〉에서 보면 1980年の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에 있어서 全國과 濟州 사이에 약간의 差異가 발견된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人~2人的 少人數家口の 比率은 여전히 濟州島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1人家口の 比率은 濟州島가 全國의 分布比率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3人~5人 家口の 比率은 全國水準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60年 중반이후 全國의 3人~5人家口 比率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이다.

③ 6人~7人 家口の 比率은 濟州島에서 약간 높지만 全國과 濟州의 比率差異는 극히 미미하다.

④ 8人以上의 多人數家口는 전체적으로 그 분포비율이 매우 낮지만 濟州島 보다는 全國水準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다.

⑤ 1980年の 平均家口員數는 全國이 4.55人, 濟州가 4.32人으로 全國이 약간 많지만 1985年 人口센서스 報告에 의하면 全國이 4.09人, 濟州가 4.04人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濟州島의 家口員數別 家口分布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1人家口의 比率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表 14〉 1人家口의 比率

(千分比)

	1 9 6 0	1 9 6 6	1 9 7 5	1 9 8 0
全 國	23.0	27.9	42.3	48.0
濟 州	89.8	96.1	121.8	111.7

註：각년도 人口센서스報告書. 보통가구. 1966년 자료는 10%표본조사집계치임.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國的으로 1人家口의 比率이 점차 높아가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3%(1960年)~4.8%(1980年)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濟州島는 9%~12%나 차지함으로써 약 2배~3배 이상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濟州島에서 1人家口의 比率이 이렇게 높은 것은 長男分家를 原則으로 하는 家族制度와 中年以上 女性들의 死別率이 매우 높는데 주로 原因이 있는 것 같다.¹⁰

2. 世代別 家口構成

家口의 構成形態를 파악하기 위해서 家口員들의 世代構成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夫婦家族이나 核家族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家族形態를 취하는 사회에서는 家口의 構成도 1世代나 2世代에 집중될 것이고 擴大家族이나 直系家族과 같이 구성이 복잡한 형태를 취하는 사회

¹⁰ 濟州島의 1人家族에 대해서는 金惠淑(1985)과 李昌基(1987)의 논문을 參照할 것.

에서는 3세대 以上の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家口員의 世代區分은 家口員들이 모두 親族關係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반가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혈연가구>¹¹를 제외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리에서는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濟州島의 世代別 家口構成을 살펴보고 全國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表 15> 世代別 家口構成 (%)

	1 9 6 6		1 9 8 0	
	全 國	濟 州	全 國	濟 州
1세대	7.9	16.5	13.3	18.4
2세대	66.1	62.7	69.5	69.4
3세대	23.5	15.8	16.7	12.0
4세대 以上	2.5	5.0	0.5	0.3
計	100.0	100.0	100.0	100.1

註：· 비혈연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 단독가구는 1세대 에 포함.
- 1966년 4세대 以上 家口에는 4세대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중간세대가 결여된 일부 3세대 가구도 포함됨.
- 1966년은 10% 표본조사 집계치임.

<表 15>의 世代別 家口構成을 보면 2세대 家口가 항상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해서 1980년에는 全國과 濟州 모두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세대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全國은 3세대 家口로서 16.7%, 濟州는 1세대 家口로서 18.4%로 나타나고 있다. 4세대 以上 家口는 全國이 濟州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1% 미만의 아주 적은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濟州島는 1세대 家口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3세대 以上 家口의 비율이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세대 家口의 비율은, 적어도 1980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의 자료를 1966년과 비교해 보면 濟州島의 특성이 좀 더 뚜렷하

¹¹ 「혈연관계가 없는 5명 이하의 사람들이 집단시설 이외의 거처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같이 살고있는 가구」(「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 용어해설)로서 人口센서스에서는 <일반가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게 나타난다. 그동안 3세대 家口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고 1세대와 2세대 家口의 비율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1966년에는 濟州島와 全國의 비율의 차이가 1980년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특히 1세대 家口의 比率은 濟州島가 全國의 2배이상이나 되는 것이다. 1966년에 4세대 이상 家口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4세대 이상 家口 뿐만 아니라 中間世代가 결여된 일부 3세대 家口(祖父母와 孫이 같이 사는 家口등)를 포함하여 <기타 친족가구>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濟州島에서 1세대 家口의 比率이 특히 높은 것은 單獨家口의 比率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島의 1人家口의 比率은 1966년에 9.6%, 1980년에 11.2%나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세대 이상(1966년에는 2세대 이상) 家口의 比率이 濟州島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濟州島의 家口構成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家口員의 結合形態를 分析해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3. 家口員의 結合形態

앞에서 우리는 世代別 家口分布를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家口의 構成形態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家口員의 結合形態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濟州島의 家口員의 結合形態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夫婦와 子女로 이루어진 家口로서 全體의 半數를 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家口形態라 할 수 있다.

片父母와 子女로 이루어진 家口와 單獨家口도 각기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子女와 夫婦와 片親으로 구성된 家口와 夫婦만으로 이루어진 家口, 기타 3세대 家口가 각각 5%~6% 정도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表 16〉 結合形態別 家口(1980)

	(%)	
	全 國	濟 州
단독가구	4.87	11.38
부부	6.09	5.61
기타 1세대 가구	2.29	1.38
부부+자녀	53.78	52.50
편부모+자녀	9.47	12.82
부부+양친	0.15	0.07
부부+편친	0.45	0.36
부부+자녀+부부의 繼제자매	2.34	0.81
기타 2세대 가구	3.30	2.79
자녀+부부+양친	1.88	0.80
자녀+부부+편친	8.02	6.20
기타 3세대 가구	6.81	4.98
4세대 이상가구	0.53	0.30
計	99.98	100.00

註: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그 외에는 〈기타 2세대 가구〉¹²와 〈기타 1세대 가구〉¹³가 각각 2.8%와 1.4%로 나타날 뿐 나머지는 1%미만의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濟州島의 家口員의 結合形態를 全國과 비교해 보면 過半數를 점하고 있는 夫婦와 子女로 이루어진 家口의 比率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片父母와 子女로 이루어진 家口와 單獨家口의 比率은 濟州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單獨家口의 比率이 濟州에서 크게 높은 것이 두드러진다. 그 외의 다양한 결합형태는 모두 濟州島가 全國水準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家口員의 結合形態의 分析을 통해서 家族의 類型分類를 시도해 보고 싶었지만 각 世代의 〈기타〉로 분류된 家口의 구체적인 結合形態를 확인할

¹² 1966년 인구센서스 보고서의 용어해설에 의하면 夫婦의 조카를 포함하는 家口가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¹³ 주로 男妹 혹은 從男妹로 이루어진 家口일 것으로 짐작된다.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래서 筆者는 1966年 人口센서스 보고서의 용어 해설을 참고해 <기타 1세대 가구>는 男妹 혹은 從男妹로 구성된 家口로, <기타 2세대 가구>는 夫婦와 조카 또는 叔父와 조카로 이루어진 家口로, 그리고 <기타 3세대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는 父母 및 祖父母를 포함하는 가구로 간주하여 單獨家口, 過渡的 家口, 夫婦中心家口, 父母 및 祖父母를 포함하는 家口의 4가지로 잠정적으로 類型化해 보았다.

單獨家口는 崔在錫의 家族類型 分類에서¹⁴ 1人家族에 대응되는 것이다.

過渡的 家口는 <기타 1세대 가구>로서 過渡的 家族에 대응되는 것이다.

夫婦中心家口는 <부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기타 2세대 가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夫婦家族에 대응된다.

父母와 祖父母를 포함하는 家口는 <부부+양친> <부부+편친> <자녀+부부+양친> <자녀+부부+편친> <기타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를 포괄하는 것으로 直系家族과 傍系家族에 대응되겠지만, 1975年 센서스에서 全國의 傍系家族이 0.4%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崔在錫: 1982B, p. 20) 주로 直系家族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類型化해서 1975年 全國의 家口類型과 家族類型別 分布를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¹⁵

결국 筆者가 분류한 家口類型을 각각 1人家族, 過渡的 家家, 夫婦家族, 直系家族으로 간주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1980年의 類型別 家口分布를 가지고 全國과 濟州를 비교해 보면 다음 <表 17>과 같다.

<表 17>에 의하면 夫婦中心家口(夫婦家族)은 全國과 濟州가 거의 비슷한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單獨家口(1人家族)는 濟州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父母 및 祖父母를 포함하는 家口(直系家族)는 濟州島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過渡的 家口(過渡的 家族)도

¹⁴ 崔在錫은 1人家族, 過渡的 家族, 夫婦家族, 直系家族, 傍系家族의 5類型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崔在錫(1982A: 第三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¹⁵ 1975年 全國의 家族類型別 分布는 人口센서스 原票를 1/1,000 추출하여 분석한 崔在錫(1982B: p. 20)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表 17〉 類型別 家口分布 (1980)

(%)

	單 獨 家 口 (一人家族)	過 渡 的 家 口 (過渡的家族)	夫 婦 中 心 家 口 (夫婦家族)	父 母 及 祖 父 母 를 포 含 하 는 家 口 (直系家族)	計
全 國	4.87	2.29	74.99	17.84	99.99
濟 州	11.38	1.38	74.53	12.71	100.00

註: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濟州島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都市人口의 比率이 濟州島에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農村地域(郡部)에서는 全國(0.62%)이나 濟州(0.52%)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家口員의 結合形態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濟州島의 家族이 父母나 祖父母와 同居하는 비교적 복잡한 家族을 構成하는 경향이 적고 家族構成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 하겠다.

4. 家口員의 範圍

家口의 構成形態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家口主를 중심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家口를 構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家口主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子女로서 家口主 100명에 대하여 全國이 215.82名, 濟州가 224.77名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配偶者로서 全國이 78.22名, 濟州가 67.83名으로 나타났다. 濟州島에서 配偶者의 數가 적은 것은 死別率과 離婚率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配偶者數는 적은데도 子女의 數에 있어서는 濟州島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濟州島의 出生率이 그만큼 높았던 때문이라 생각된다.

家口主와 配偶者 그리고 子女는 核家族의 構成員이다. 이들의 합계는 全國이 394.04名, 濟州가 392.60名으로 全國과 濟州가 거의 비슷하다. 家口當 平均 3.9名 以上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家口當 平均人員의 86.7%, 90.9%에 해당된다. 家口를 구성하는 성원의 대부분이 核家族員임을 알수 있다.

〈表 18〉 家口員의 範圍(1980)

	全 國	濟 州
家口主	100.00	100.00
배우자	78.22	67.83
자 녀	215.82	224.77
자녀의 배우자	5.77	3.32
손자녀·증손자녀	0.16	0.24
가주주 및 배우자의 부모	14.84	9.13
기타 친척	28.52	16.87
가사 종사자	1.95	0.59
기타 동거인	9.35	9.25
計(家口員數)	454.63	431.99

註: 일반가구(비혈연가구 포함). 숫자는 家口主 100에 대한 比.

核家族員을 제외하고 直系家族을 구성하는 중요 성원은 父母, 子女의 配偶者, 孫子女 및 曾孫子女를 들 수 있다. 家口主 및 配偶者의 父母는 家口主 100명에 대하여 全國이 14.84名, 濟州가 9.13名으로 濟州島가 약간 낮다. 子女의 配偶者도 역시 全國이 5.77名, 濟州가 3.32名으로 濟州島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父母와 子女의 配偶者數가 濟州島 家口에서 적은 것은 물론 結婚한 子女가 父母와 同居하지 않는 家族制度의 영향일 것이다.

父母, 子の 配偶者, 孫子女 및 曾孫子女등의 直系家族員은 家口主 100名 당 全國이 20.77名, 濟州가 12.69名으로서 核家族員에 비해 매우 적지만 濟州島에서 더욱 적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친척〉은 兄弟姉妹, 從兄弟姉妹, 伯叔父母, 조카등 直系家族員 이외의 親族과 姻戚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濟州島에서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濟州島에서 核家族員을 제외한 直系家族員과 기타 친척의 비율이 낮은 것은 濟州島의 家族構成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家口員의 종류가 적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가사종사자와 기타 동거인이 家口當 약 0.1人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기타 동거인>의 수가 많은 것은 非血緣家口(註 11參照)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V. 要約과 整理

지금까지 우리는 1980年 人口센서스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濟州島의 家口構成을 分析해 보았다. 그 결과 濟州島의 家口構成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모습과 상이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濟州島의 家口構成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을 要約하고 整理해 보기로 한다.

1. 濟州島에는 女子家口主가 비교적 많고 60代以上の 老年層 家口主의 比率이 높다. 특히 女子家口主의 年齡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 家口員의 配偶關係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死別者의 比率과 離婚者의 比率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死別者의 比率은 男子보다 女子들에게서 높고 특히 50代以上の 年齡層에서 매우 높다. 離婚者의 比率에 있어서도 男子보다 女子가 높게 나타나지만 全國과 비교 했을 때는 남녀 모두 濟州島가 2.3배(年齡에 따라서는 3배이상)나 더 높다.

3. 1960年代 中半이후 全國적으로 3人~5人家口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 1980년에 와서는 3人以上 家口의 分布比率에 있어서는 全國과 濟州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나 1人~2人的 少規模 家口의 比率은 여전히 濟州島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濟州島에서 1人家口의 比率이 매우 높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되었다.

4. 家口員의 世代構成에 있어서는 單獨家口를 포함한 1世代 家口의 比率이 濟州島에서 높게 나타나고 3世代以上 家口의 比率은 全國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家口員의 結合形態에 있어서는 夫婦와 子女로 이루어진 家口가 가장 많아서 過半數를 점하고 있지만 그 分布比率은 全國과 濟州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片父母와 子女>로 이루어진 家口와 單獨家口의 比率은 濟

濟州島에서 높고 그 외의 結合形態는 濟州島가 全國水準보다 낮게 나타났다.

6. 家口員의 結合形態를 類型別로 살펴보면 單獨家口(1人家族)의 比率이 濟州島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父母 및 祖父母를 포함하는 家口 즉 直系家族의 形態는 濟州島에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夫婦中心의 家口 즉 夫婦家族의 形態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7. 家口主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家口員의 範圍를 확인해 본 결과 配偶者의 數는 濟州島에서 다소 적게 나타나지만 子女의 數가 다소 많아서 家口主, 配偶者, 子女등의 核家族員의 數는 全國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核家族員을 제외한 直系家族員과 <기타 친척>은 濟州島에서 적게 나타난다. 결국 濟州島의 家口規模가 적은 것은 核家族員 이외의 親族家口員을 적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濟州島의 家口構成은 成員數가 적고 構成이 비교적 단순한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濟州島의 家口構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1980年の 資料를 가지고 全國과 비교해서 靜態的으로 파악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60年代 후반 이후 産業化, 都市化가 진전됨에 따라 全國적으로 核家族化가 촉진되어 왔고, 그 결과 외형상으로는 全國水準의 家口構成形態와 濟州島의 家口構成形態가 매우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濟州島의 家口構成의 變化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全國水準의 核家族化가 빠르게 진전됨으로써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소급해 올라가면 全國水準과 濟州島 사이의 差異는 더 커질 것이고 濟州島의 家口構成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라 생각된다. 家口構成에 대한 通時的 分析 즉 變化의 研究는 별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하고 다만 全國的인 核家族化에 따라 全國水準의 家口構成과 濟州島의 家族構成이 外形的으로 접근해 간다고 하더라도 內容上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는 것만을 지적해 둔다.

參 考 文 獻

- 金惠淑(1985), “濟州島의 一人家族 研究”, 「제주대 논문집(사회과학편)」 20.
 _____(1986), “濟州島의 離·再婚研究”, 「제주대 논문집(사회과학편)」, 22.
 朴用厚(1976), 「濟州島誌」, 白映社.
 夫萬根(1975), 「光復濟州 30年」, 文潮社.
 石宙明(1949), 「濟州島의 生命調査書」, 서울신문사출판부.
 李昌基(1982), “濟州島의 性別·年齡別 人口構成”, 「人口保健論集」 2-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_____(1987), “濟州島 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6, 제주대 耽羅文化研究所.
 崔在錫(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_____(1982a), 「韓國家族研究」(改訂版), 一志社.
 _____(1982b), 「現代家族研究」, 一志社.
 경제기획원(1966),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1966).
 _____(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1980).
 _____(1980), 「경제활동」(1980년 인구센서스 15%표본조사 집계결과).
 제주도(1981), 「제주통계연보(1981)」.